

# 1960년대 패션 트렌드에 따른 헤어스타일의 양상

유미금\* · 최정순

서해대학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방식에 있어 효과적으로 표현해주는 토털 개념을 패션이라고 부를 수 있다. 패션은 토털 뷰티의 이미지 역할로 의복, 액세서리 뿐 만 아니라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피부 미용, 네일 아트, 미용성형·문신·비만관리 등과 더불어 여성의 아름다움을 표현해주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 특히 헤어스타일은 패션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 매개체로써 현대로 올수록 패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헤어스타일이 패션의 분위기와 기조를 알려 주는데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20세기를 통틀어 볼 때, 1960년대는 헤어스타일의 과도기적 시발점이 된 헤이저 격변의 시대로 패션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변화가 심했었고, 패션 트렌드에 따른 헤어스타일의 변화도 다양한 헤어 역사상 중요한 10년이었다. 특히 모든 헤어스타일들이 공존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1960년대에는 영 패션의 시기로 독특한 청년문화가 형성되었다. 전 세계의 젊은이들은 에드워드 시대의 우아한 복장스타일과 이미지를 차용한 현대적인 의상들을 입었으며, 패션의 구조적 측면에도 근본적인 혁명이 일어난 시대였다. 즉, 본격적인 기성복의 시대가 개막되었는데 피에르가르탱, 이브생로랑 등 파리의 유명 디자이너들이 고급 기성복 산업에 진출하였고, 젊은층의 스트리트 패션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으며 모즈룩을 필두로 재키룩, 미니스커트, 팝아트&웁아트 룩, 스페이스 룩, 히피룩, 유니섹스룩 등의 독특한 스타일을 선보였다.

헤어스타일에 있어 1960년대에는 다양한 머리 모양이 등장하였고, 모든 기장의 헤어스타일이 공존한 시기였다. 1960년대 초는 1950년대에 이어 올림머리인 부팡, 비하이브, 시농, 타이거 테일 등의 유행이 지속되다가 커트의 테크닉이 발달하면서 가발이 유행하게 되었다. 초기에는 가발에만 시행되었던 커트들이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모델이나 연예인들에게 시술되어 인기를 끌었다.

1960년대 패션 트렌드에 따른 헤어스타일의 양상을 살펴보면,

재키룩과 비하이브는 60년대 초, 미국의 페스트레이디가 된 재클린 케네디가 유행의 주인이었다. 그녀는 필 박스라는 모자와 비하이브라는 헤어스타일로 큰 유행을 불러일으켰다.

모즈 헤어스타일은 에드워드시대의 우아한 복장스타일과 풍습을 모방하면서 사회에 초연한 듯한 태도를 보이는 독특한 청년문화가 형성되었던 때인 모즈룩에서 유행되었다. 모즈 헤어컷트는 백곰한 머리로 머리의 분할선 높이에서 머리 뒷부분을 볼록하게 높여 주는 것이다. 독창적인 모즈클론 밴드인 '후'는 '더 헤어', 비틀즈의 프랑스식 세자르 커트의 일종인 앞머리를 살짝 덮는 'MOP TOP'는 전 세계적으로 모방되었다.

미니스커트와 숏 커트스타일은 트위기의 가냘픈 몸매와 비달사순의 단발머리와 함께 선보였으며, 기본적으로 짧은 스타일인 유니섹스 분위기로 마리퀀트의 패션과 스타일을 맞추었다. 또한 보이쉬 스포티 헤어컷트는 소년처럼 보이는 스타일이자, 1920년대 유행했던 머리스타일의 변형으로 푸딩 그릇 같은 모양새이다.

\* Corresponding author: yoohair2002@yahoo.co.kr

팝아트 & 옵아트룩과 기하학 또는 비대칭스타일은 팝아트 패션의 대표주자였던 이브 생 로랑이 발표한 몬드리안 룩을 통해 보여 졌으며, 그는 현대적인 추상 회화를 패션에 도입했고, 앤디 워홀의 팝아트를 드레스에 활용하였다. 헤어스타일을 보면 일직선의 앞머리와 여성스러운 올림머리를 연출하여 기하학적이면서 부드럽게 표현되었다.

스페이스룩과 가발의 사용은 우주패션의 대명사인 꾸레주 컬렉션에서 우주 공간 같은 분위기의 미래적인 룩으로 제시되었다. 이 컬렉션에서 헤어를 담당한 비달사순은 대담하고 기하학적인 커트로 주목을 받았다. 헤어의 선, 각, 면의 대비가 돋보였으며, 우주패션의 공상적인 의상과 매치되는 헤어스타일을 표현하는데 가발이 칼라와 디자인 면에서 단연 우세하였다.

히피룩과 내츄럴 헤어스타일은 미국의 물질 만능주의적인 사회를 거부하는 작가와 지식인들에 의해 시작된 언더그라운드 운동이 배경이 되었으며, 이러한 히피스타일은 전통기성세대에 저항하여 블루진, 유니섹스 웨어, 여성의 가슴팍 노출, 남자의 긴 머리, 너저분한 외모 등으로 표현되었다. 히피의 풀어헤친 긴 머리는 자연과 자유를 상징하였고, 어떤 머리 손질도 거부했다. 이른바 히피들은 '노 헤어'를 표방했다고 할 수 있다.

유니섹스룩과 중성적인 헤어에서 유니섹스의 원조는 체육복 같은 차림이며, 기능적인 스포티브룩이라 하여 작업복 스타일이 정장으로 이용되었다. 피에르가르탱과 같은 디자이너들은 이를 적극 수용하였고, 남녀가 구분되지 않는 중성적인 스타일로 표현되었다. 여성은 숏 커트, 남성은 장발을 선호한 중성적인 스타일로 남녀구별이 애매모호하였으며, 여성의 롱 헤어에서도 스포티하면서 강한 솔리드형태의 직선을 앞머리와 형태 선에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1960년대는 모든 기장의 헤어스타일이 다양하게 공존했던 시기였으며, 스커트 기장도 짧은 미니에서부터 미디, 맥시 등 다양하게 착용되었다. 특이한 점은 머리가 짧아질수록 스커트 길이도 짧아지고 활동성 있는 옷을 입는 반면, 머리가 길어질수록 의상도 우아하거나 기장이 길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작은 컬과 웨이브는 사라지고 손질하기 편한 헤어를 갖게 되었다. 이것은 곧 여성들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기하학적인 아름다운 각도의 커트를 창안한 비달사순은 물 속에서조차도 아름다운 커트의 머리를 강조하며 기하학적인 각도의 커트방법을 창안했다. 이 커트들은 현재에도 모든 커트의 기본이 되고 있다.